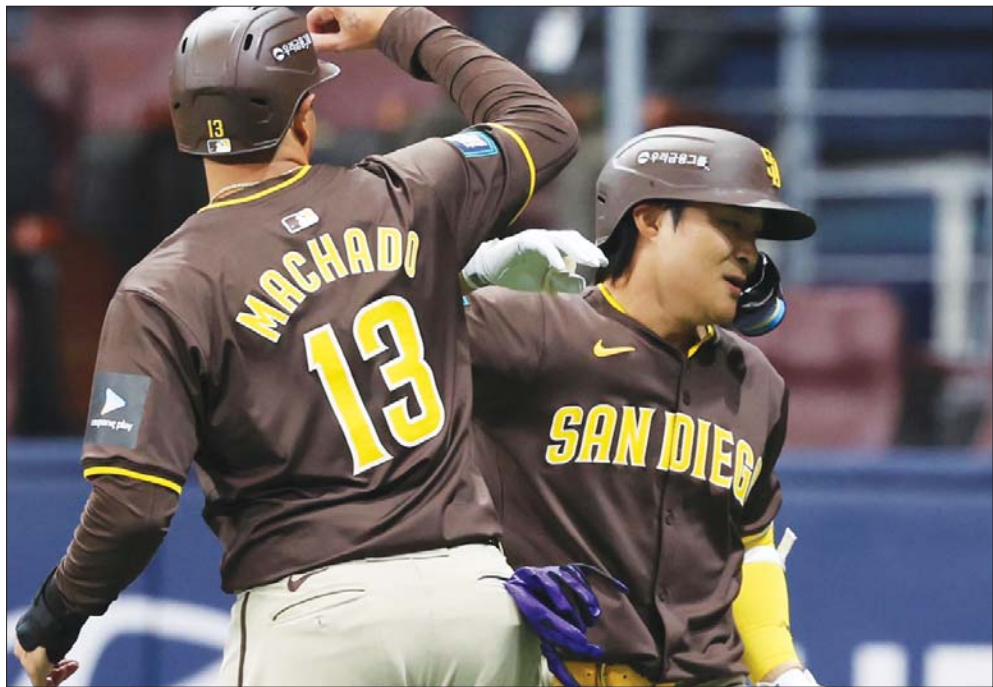




1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G 트윈스의 연습경기,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투런 홈런을 날린 뒤 매니 마차도와 기뻐하고 있다.

김하성 투런포 ‘왕·왕’

MLB 샌디에이고, KBO리그 챔피언 LG에 5-4 승리
고우석, LG 상대로 1이닝 1피홈런 2실점 세이브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3 KBO리그 통합 우승을 거둔 LG 트윈스를 눌렀다.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익숙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선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승리에 앞장섰다.

샌디에이고는 18일 고척돔에서 열린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 LG 트윈스와 평가전에서 5-4로 이겼다.

오는 20~21일 고척돔에서 LA 다저스와 MLB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을 ‘서울 시리즈’로 치르는 샌디에이고는 한국 야구대표팀, LG와 평가전을 통해 컨디션을 조율한다.

전날 야구대표팀에 1-0 승리를 챙긴 샌디에이고는 LG까지 꺾고 2연승으로 개막전 준비를 완료했다.

샌디에이고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투런 홈런만 2개를 치며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다.

김하성은 2020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며 고척돔을 홈 구장으로 썼다. KBO리그 시절 고척돔에서만 48개의 홈런을 뽑아냈던 김하성은 이날도 파워를 과시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지난해까지 LG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던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고우석은 이날 9회 등판해 1이닝 2피안타(1홈런)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고 진판 세이브를 올렸다. 올해 MLB 시범경기서 5경기 1회 1홈드를 기록한 고우석은 샌디에이고 진출 후 첫 세이브를 작성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시원한 투런포로 리드를 잡았다.

2회초 선두타자 매니 마차도가 좌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를 치고 나가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다. 무사 2루에서 등장한 김하성은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임찬규의 6구째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안타를 그렸다.

선제점을 내준 LG도 홈런으로 응수했다.

LG 오지환은 2회말 1사 후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와 풀 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커터를 받아쳤다. 오지환의 타구가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면서 LG는 한 점을 만회했다.

이후 양쪽 타선이 모두 잠잠해졌다. 조용하던 경기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이번에도 김하성이었다.

샌디에이고가 2-1로 앞서던 6회초 1사 후 마차도가 볼넷으로 걸려 나갔다. 1사 1루를 맞은 김하성은 LG 두 번째 투수 정우영의 7구째 몸쪽 체인지업을 통타했다. 타구는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로 연결됐다.

이번에도 LG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6회말 선두 심민재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이때 포수 송구가 외야로 빠졌고, 이 실책을 틈타 심민재는 3루에 안착했다.

무사 3루 찬스에서 박해민이 땅볼로 심민재를 불러 들였다.

샌디에이고는 4-2로 앞선 7회초 볼넷과 안타로 일군 무사 1, 3루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중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따냈다.

고우석은 9회말 3점 차 리드를 안고 마운드에 섰다.

박해민에 중전 안타를 맞아 1사 1루에 놓인 고우석은 이재원에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1점 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손호영, 구본혁을 밟아 처리해 승리를 지켜냈다.

LG는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지만 빅리그 팀을 맞아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지난해 국내 투수 중 최다승 14승(3패)을 올린 임찬규가 LG 선발 투수로 나서 5이닝 4피안타(1홈런) 7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뉴시스

“태권도 체험하러 왔어요”

베트남 현지 여행사 관계자 초청 태권도원 팸투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 16일과 17일, 베트남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팸투어를 갖고, 5일부터 연말까지 베트남 여행객 2,000명 방한을 목표로 태권도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이기도 한 올해, 태권도진흥재단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원 특수 목적 관광 상품 운영에 앞서 베트남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 태권도원 팸투어를 가졌다.

태권도원을 방문한 베트남 여행 관계자들은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태권전·명인관 견학 등의 일정을 보낸 뒤, 특히 도복을 입고 진행한 태권도 체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날 태권도 체험은 태권도 인플루언서 ‘도킴’이 진행한 가운데 태권도 예절과 발차기 등 기본 기술을 체험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응원광왕씨는 “태권도원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태권도 복과 체험 모두 처음 해보았는데도 정



태극기 앞에서 태권도 체험을 하는 베트남 여행사 대표자들.

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태권도원 여행상품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응원광왕씨는 “태권도원이 넓고 아름다워서 좋았다. 특히 처음 태권도복을 입어보았는데 예쁘고 마음까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많은 현지인들에게 태권도원 여행상품을 알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생활체육 농구 7개팀
고창에서 전지훈련 실시

생활체육 농구 전지훈련팀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며, 서울, 진주, 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 7개 팀 90여명이 참가했다.

전지훈련 선수에 따르면 “고창으로 전지훈련을 와서 체력 훈련도 하고 여러 팀과 한곳에서 연습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농구팀 지도자는 “고창군에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연습경기를 하면서 큰 부상자 없이 진행됐고, 훈련을 통해 팀워크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농구팀이 고창을 찾은 이유는 체육관이 숙소와 거리가 가까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고창에 머무는 전지훈련 선수들에게 체육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고창군은 분석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준비 박차

내달 14일 풀코스 등… 파리올림픽 국내 선발전까지 겸해
체험·홍보관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군산의 대표 스포츠 행사 ‘2024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군산시가 한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4월 14일 국내 엘리트 정상급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시민이 함께하는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풀코스(42.195km), 10km, 5km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며 참가 선수들은 군산의 중심지를 통과해 근대 문화유산 일원과 금강호의 수려한 풍경을 질주하게 된다.

2004년 국내대회로 시작한 국내·외 동호인들에게 각광받아 온 ‘2024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2012년부터 국제대회로 추진되어 올해 10회를 맞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겸하고 있어 상당한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군산시에선 이번 대회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준비 상황 보고회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로 및 코스 정비, 교통통제 홍보 등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소한 변화도 생겼다. 먼저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기념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 이는 전국에서 군산을 방문하는 많은 인원이 상품권을 이용해 군산의 맛과 멋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군산시의 배려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군산시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통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대회장 내 부스도 참가자, 관광객,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된다. 군산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관과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부스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군산의 매력을 한껏 뽐낼 계획이다.

개인·단체 참가 신청 외에 이색적인 참가 부문을 통해 신청자들의 폭도 넓

혔다. △관내 초등학교(학교, 학원, 체육관 등) 대상 최다인원 참가팀 시상 △5인 1조 청소년(중·고등학교생) 10km 단체전 △10인 1조(혼성) 10km 단체전 △2024 행운상 △SNS 해시태그 베스트 컨테츠상 등 다양하게 선보인다.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참가를 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26일까지 홈페이지(www.gsang-marathon.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 또는 대회 사무국(1811-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산시 대표 스포츠 축제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4월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출발지인 월명종합운동장 주변과 코스 구간별로 교통이 일부 통제될 예정이다. 당일 이동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통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3년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선정

우석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우석대학교 산하협력단 부설 연구소인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년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사업에 선정된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는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 말

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를 선정, 그들의 생애와 기억에 대한 기록 채록과 사진·영상 촬영 등을 제작해 국립스포츠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전호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장은 “스포츠 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스포

츠 역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보존·전승해 나가기 위한 연구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는 스포츠 현장의 기억과 문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지난 2015년 4월에 설립, 한국 올림픽 관련 저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GROUND
SEOHAK

그라운드 서학 2024

김누리 이주원
손은영 박미정 박재연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ë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ART ART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서트서학